

기도의 형식

시편 149:1-9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기도의 형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한가 하실지 모르지만 늘 하는 개인적인 기도에도 보이지 않는 형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의 인격체인 우리들이 인격의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 자체가 경배요, 예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약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찬양과 감사, 다음은 고백, 그리고 그 다음은 간구입니다.

1. 맨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1 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라. 믿음 깊은 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호를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섭리를 찬양합니다. 성호를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두 귀한 의미가 들어 있어서 그 이름을 찬양함은 곧 그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함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외에 '엘로힘' 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는 위엄, 권위, 창조, 통치, 숭고, 존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는 영원 지존자, 영원 불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쓴 말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숨씨, 하나님의 장엄하신 행사,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들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23 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은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하는 용어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이런 수식이 필요 하느냐고 합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첫머리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혹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들의 영광의 하나님, 혹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불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의 용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보호와 인도에 대한 감사하고, 직분자로 불러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도 찬송가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앞부분의 찬양과 경배송을 먼저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2.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5-7 에 " '오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여! 주께서는 한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의 종 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동족도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온갖 퇴폐적인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개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도에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에 살면서 범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9 장의 느헤미야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성호와 하신 은혜로우신 일들을 나열하면서 백성들의 거역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중기도를 하는데 있어서의 죄 고백은 그 내용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적인 죄를 고백하므로 자기 비밀을 공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회중을 대표한 기도인지 개인 기도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8:13 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세관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개인기도입니다. 그러나 시편 90:12 에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중기도입니다.

3.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14-19 의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있거나 아직도 땅 위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혜롭고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간구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간구는 바울의 기도에서 보는 바대로 가슴 속에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뜨겁게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합니다. 간구할 때 간구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육 간의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세계선교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도 간구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는 병을 치유해 달라, 갈 길을 인도해 달라, 앞길을 지켜 달라 는 등의 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회중기도에 있어서는 특히 예배와 예배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역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많을 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이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배와 예절입니다. 인간의 대화도 예절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